

국가예산확보 연일 강행군

심민 임실군수, 정부부처 방문 지역현안 건의 개선국도 국지도 우선순위 선정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민 임실군수가 국정 주요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강행군에 나서고 있다.

심민 군수는 부처 예산안이 편성되는 지금이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1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군 최대 현안인 ▲육정호 수변도로 개설(490억원)을 비롯해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135억원) ▲국도 27호선

운종교차로 개선(150억원) ▲국도 17호선 구조물 기능 개선(45억원)의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지역주요 맞춤형 지원사업의 공모신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 선정과 ▲임실 갈마~임실 오정 4차로 개량 추가 반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를 방문해 ▲노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50억원) ▲원산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93억원)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개량사업(166억원)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심민 군수는 "현 시점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방문과 사업 타당성 논리를 통해 관련 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군 미래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은 현재 5월 17일까지 제3차 국가예산확보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부처방문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금암공원 야경특화 가족생태 근린공원 조성... 2024년 마무리 예정

102억 투입 이달 실시설계 용역

남원시가 총 사업비 102억원을 투입해 노암동 금암공원을 야경이 특화된 가족생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5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 2024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공원 활성화 정도를 감안해 금암공원 조성 사업을 2단계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며, 1단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도

교, 힐링테크 산책로, 어린이모험놀이터, 북카페, 체력단련장, 쉼터, 종탑·우물복원, 소나무숲 경관조형, 프로포즈인 등을 2021년까지 완료해 지역주민들이 근린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오강만족 체험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합곡유원지와 춘향테마파크~옛다솜 이야기원~오강만족 숲~금암공원~광한투원~남원예촌~구역사~교동산성으로 이어

지는 시내권 관광벨트 거점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3월 금암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그동안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정식 도시과장은 "가족생태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밤에도 즐길거리를 제공해 하루쯤 잠을 자면서 머무는 관광남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발효미생물진흥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지원 전통장류제조기업 매출 성장 주도

순창군 재단법인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대표이사 황숙주, 이하 진흥원)이 농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장류제조기업의 매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진흥원은 2018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의 종균보급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의 전통장류제조업체 5곳과 발효식품제조업체 5곳을 대상으로 토착종균(황국균, 초고균, 효모, 초산균)을 보급하고 있다. 또 토착종균 보급과 함께 종균 활용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어, 완제품 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전통장류제조업체 5곳은 지원 받은 종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매출액이 2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발효숙성과정을 거치는 발효제품 특성상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전통장류제조업체의 대표들은 발효기간 단축과 안정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소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종균활용 전통장류제조기업의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

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지원받은 업체는 1년 단위 지원으로, 무료 종균공급이 끝 중단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종균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길 원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끝나도 진흥원 측의 미생물 보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우수한 국내 토착발효미생물의 생산지원을 목적으로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2020년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공과 함께 국내 10조원에 달하는 발효식품시장에 토착발효종균활용의 대량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대강면, 유채꽃과 섬진강 가족사랑 걷기대회

남원시 대강면에서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섬진강 대강 유채꽃 축제 행사 일환으로 섬진강변 특설무대 앞에서 출발하는 '섬진강 두레기길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접수는 17일까지 대강면사무소에서 받고 현장접수는 당일 낮 12시 30분부터 받으며, 남원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섬진강특설무대에서 출발해 유채꽃 경관다리를 지나 조경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진강변(약 5km)을 걸으며 가족,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걷기대회 후에는 섬진강 주변에서 나는 각종 나물을 이용한 유채꽃 밥 시연과 함께 500인 이상의 비빔밥 퍼포먼스를 실시하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완주자 전원에게는 기념품 증정, 경품추첨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되고 행사에 관한 문의는 대강면사무소(063-620-3928)로 하면 된다.



한편 양구상 대강면 발전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는 대강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참여형 농촌경관 축제 행사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섬진강변에 유채꽃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한편, 대강면 지역이섬진강의 대표 관광지역으로 부각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전북도장애인체육대회 순창군 선수단 결단식

순창군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고창군립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전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결단식을 14일 가졌다.

이날 결단식은 순창읍에 위치한 늘 식당에서 각 종목단체 대표들과 임원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전을 다짐했다.

군은 부안군에서 개최된 2017년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종합 8위에 오른 바 있었다.

이번 고창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4개월 전부터 각 종목별 선수를 선발해 훈련에 매진해 왔다.

올해 선수단 구성을 보면 14개 종목에 선수단 124명과 임원 및 관계자 26명을 포함해 총 150명이 출전하며 종합 7위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단식에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만큼 그동안 훈련해 온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순창 고추장의 매운맛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귀농체험학교 운영

임실군(군수 심민)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예비 귀농귀촌인 35명을 대상으로 귀농체험 학교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귀농체험학교는 다양한 견학 및 체험을 통해 귀농하기 좋은 임실군을 안내하고 있다.

선배 귀농인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해 귀농귀촌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과정은 첫날에는 임실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설명 등의 이론교육으로 실시됐다.



이양원 귀농체험(현장실습) 교육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는 '사랑가득! 정성가득! 밀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다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밀반찬 나눔봉사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임금순)는 14일 지역 내 소외계층 및 홀몸 어르신 20세대에 '사랑가득! 정성가득! 밀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다.

센터는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위해 정성이 담긴 밀반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강천적십자봉사회(회장 소명자) 회원 10여명은 자원봉사자의 집 빨래방에서 손수 다듬고 만든 열무김치와 파리고추멸치볶음, 미역줄기 반찬 3종류를 20세대에 전

달했다.

임금순 소장은 "지역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자원제공으로 서로 돕는 따뜻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사랑의 밀반찬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밀반찬으로 부족하나마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